

98.2.12 신학강좌 3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신학의 사조」 3

1. <12 강좌> 계획 -- 어거스틴에서 포스트-모던까지

- | | | |
|----------|--------------|---------------|
| 1. 어거스틴 | 2. 토미즘 | 3. 종교개혁 |
| 4. 경건주의 | 5. 자유주의 | 6. 근본주의 |
| 7. 신정통주의 | 8. 실존주의(볼트만) | 9. 정치신학(몰트만) |
| 10. 해방신학 | 11. 환경/생명신학 | 12. 포스트-모던 신학 |

2. 지난 시간의 복습/보강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49세 졸),

한스 레: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토마스는 없었다.”/“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고는 토마스를 이해할 수 없다.”

- 1) 존재에는 서열이 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선하다.
- 2) 인간의 자유 의지는 상위 질서의 명령에 복종할 때 보존된다.
- 3) 행복은 최고의 질서인 신과의 연합(복, visio dei)에서 온다.
- 4) 만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결과보다 상위 질서이다.
- 5) 초자연적 은총(물질)은 자연을 완성한다.
성례전을 통하여 전달된다. 인간의 자연(이 세상에 관한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 6) 구원은
은총(성례전 참여)으로 시작(義人이 됨)/ 선행을 통하여/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덕에 대한 보상으로서)
- 7) <자기-애>는 「신(이 주신 피조물의 선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하며, 이웃 사랑 보다 기본적이다.
(피조물인 나의 존재 = 이미 신의 선에 참여해 있다)
- 8) 예수 죽음은 “필연”(안셀름) 아니다. 그러나 “적합하였다”
인간의 penalty 지불, merits 확보, good examples 남겼다.
- 9) 신의 예정=피조물의 개별적 존재 이전의 선택+ 타락 허용
우리는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 => vigilance 강조

*/ 여성관 ==

3. (중세) 가톨릭의 기본 전통

- 1) 합리주의(<--주지주의)(권위 내에서의), 자연(이성)의 존중
- 2) both-and(은총과 자연, 신앙과 이성, 신과 인간)(<-- either-or)
- 3) “성인”(saint) 신앙 -- 여분의 공적
- 4) charity의 가치/실천 -- 구원
- 5) 「교회=hierarchy」를 통한 구원 (성직자주의)

3.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63세 졸), 독일 종교개혁의 초석

1. 年譜

1. 독일 삭소니, 만스펠트의 광부 아들
2. 성당학교, 에르푸르트‘대학’ 수학, 철학(신학)을 공부(그의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램).
3. 그 후, 1505(22세)에 어거스틴계 수도원에 가입 <-- “천둥” 서원, 24세에 성직 수임(신부)
4. 28세, 베텐베르크(1502년, 프레데릭이 신설) 대학에서 신학 강좌 시작,
일시 유학 후, 신학박사로서 성서 강좌를 맡음(죽기까지)
5. 그 후 1512-1515(29-32세), “종답의 경험”
롬1:17- 믿음만으로 義認(구원), 교회와 사제의 증보 불필요
6. 1517, 10. 31. Wittenberg의 Schlosskirche의 문에 “95개 조항”을 게시
“면죄부(免罪符, indulgences)”에 반기 -- 개혁의 불화
7. 1521, 1.3. 파문당함(그 이전에 그의 사상, 서적 보급 금지령, 1520) (레오 10세 교황)
8. 1521년 Worms 국회 앞에 소환(제국 의회), 황제의 금령에 처해짐.
삭소니의 선제후, 프레데릭이 후원, 살아남다.

9. 1524(41세), 수녀 캐더린과 결혼.

2. 주요 저서

1. 종교개혁 3대 논문(1520)

- 1)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 독일인, 자치 주장
- 2) 「교회의 바벨론 포로」 -- 화체설(化體設) 비판/ ** <성례전 신학의 유형들>
- 3) 「기독교인의 자유」 -- 제신도 사제론

2. 많은 찬송가 작사, 작곡 보급(예, 384장)

"술과 노래와 사랑 --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사막이다."

3. 교리 문답, 성경 주석 그외 다수

3. 당시 주요 사건/정황

1. 십자군 전쟁 후유증(교회/황제의 권위 실추, 경제 파탄)
유아사망을 극히 높였다(플로렌스, 61%가 6개월 전에 사망)
1527년, 루터의 지역에도 흑사병에 유행, 이 무렵, 유럽에 매독이 등장하다.
소작농민들 사실상 노예살이
(당시, 교회, 피해자들=하느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 "노아 이야기" 이용)
농민 봉기가 잦았다. -- 봉건체제의 붕괴 위기

//////?? 사회 전반의 문제: the issue of insecurity ?????////////

2. 유럽의 종교개혁 선구자들 -- 훗스, 위클리프 등
3. 지리상의 발견(새 인식 등장), 인쇄술 등장
4.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 수리를 위한 대대적 모금 부흥회(면죄부)

4. 사상적 배경

1.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
중세의 기초(하늘의 영원한 상의 실재를 믿음)를 흔들다
개별자의 실재를 존중한다
주요 주창자들, 12세기의 Abelard, 14세기의 William of Occam
2. 어거스틴의 비판론(타락론)

5. 기본/주요 사상

1. "원리": <복음주의>
 - 1)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성경)
/** 성경 주의 등장의 창구가 열리다 ??
 - 2)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리(믿음/은총)
/** "싸구려 신앙"의 길이 열리다 ??
2. "제신도 사제론" (반성직자주의, 평신도 운동의 시작)
/** 개신교 목사 -- 신학을 두려워 할 이유가 생기다 ??
3. "행동"의 종교적 의의 약화
 - 1) 사랑을 위하여 2) 웃과 같은 것
4. 또 하나의 "어거스틴적 실수"
재세례파들에 대한 잔학 행동 요구 (어거스틴 = 도나투스<순결>파에 대한 폭력 진압)

6. 우리가/에게 할 말

1. 성경의 필요성

칼빈은 소위 자연 계시를 인정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비치는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I, 1, 6-1). 이 말은 자연을 통한 창조주에 대한 계시가 적어도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함을 칼빈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이 자주 인용하는 비유는 창조주에 대한 자연 계시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겠지만 거의 두 날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I, 1, 6-1). 다시 말하면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서 자연 계시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안내자요 교사요 안경”이다. 특히 창조의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영생을 얻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니, 인간이 영생을 얻게 위하여는 하나님을 “구속의 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이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데, 이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 즉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은총”으로 주셨다.

2. 성경의 권위 출처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위에서 말한 칼빈의 논의는 그이 독특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종교개혁자들의 독특한 생각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칼빈이 성경의 성격과 권위로 논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는, 성경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 혹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 곧 성경의 권위의 근거와 소재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의 사상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참조 I, 1, 7-1).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가장 유해한 오류”라고 공격하고 있다(I, 1, 7-1).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빈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하여서라거나 혹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의 부패한 교회, 곧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한 교회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려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 의하여 “확신”하게 된다(I, 1, 7-4).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칼빈은 인간적 논증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인간적 논박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의 합당한 증인인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I, 1, 7-4). 또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I, 1, 7-5).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려 하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I, 1, 8-13).

그러면 성령을 빙자하여 우리가 말씀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같은 논리는 당시의 신비적 광신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역시 칼빈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한다. “성령을 떠나서” 작용하는 성령이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이 성경을 강조한다 하여, “사람을 죽이는 문자에 의존하는 자”라고 비판하던 당시의 광신자들에 대하여 칼빈은 말한다. 실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글”이다. 그러나 칼빈이 믿기로는,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따라서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세겨지며 그 리스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I, 1, 9-3). 즉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I, 1, 9-3)

3.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과 하나님의 일관성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구약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신구약의 유사점,” 혹은 “동일성”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 “차이점”에 그의 이해에 집중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칼빈이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구약성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지상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것은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일,” 곧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은 아직 “실재(實在)” 곧 그리스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 주었다(이는 칼빈이 첫째 차이와 둘째 차이라고 말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I, 2, 11-14).

2)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은 “영의 역사”가 없이 발표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졌었기 때문이다(I, 2, 11-8). 나아가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의식법은 “무력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하여 폐지”되며, 그 원인이 의식법 자체

내에 있다(I, 2, 11-8).

3) 구약성경은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종살이의 언약”이며,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주기 때문에 “자유 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I, 2, 11-9).

4) “구약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게 국한하셨으나,”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관계한다.” 구약 시대에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들은 자체의 암흑 속에 방치해 두셨다(I, 2, 11-11).

칼빈은 왜 이런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칼빈 자신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화형시킨 이단자, “저 훌륭한 불량배 세르베투스”(I, 2, 10-1)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고, 젖과 꿀로 만족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I, 2, 11-1). 그러면 이런 “차이 혹은 다양성”을 인정한 칼빈은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칼빈에 의하면, 여기서 세르베투스 등의 이단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일관성” 문제였다(참조 I, 2, 11-13). 세르베투스와 칼빈은 다같이 성경 속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르베투스와 달리 칼빈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와 방식으로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둘은 다르다.

칼빈의 논리의 의하면, 그 차이는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방법”(I, 2, 11-1)에 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상징과 실재가 궁극적으로는 만나듯,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신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I, 2, 11-13). 즉 “교회의 유년기와 성년기”(I, 2, 11-5)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하는 방식(참조 I, 2, 11-13)을 바꾸셨을 뿐 그 본질을 바꾸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경 내에 있는 역사적 “차이”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우리는 칼빈의 주석을 통하여 더 명백히 보게 될 것이며, 이 점에 있어 그는 매우 뛰어난 성경 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 역사 비평의 시대가 열리기 훨씬 이전에 살았지만 그는 성경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깊었다.

4. 칼빈은 왜 성경의 권위를 말하였는가?

성경의 “무오성”을 말하기 위하여서였는가? 아니다.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위에서 본 바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최종적 근거와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매우 실체적인 신앙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내세웠으며, 열광주의자들은 성령을 빙자하여 각자의 경험을 주장하였으며, 칼빈은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강조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의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5. 칼빈의 성서론 보설

Joshep Haroutunian, ed., Calvin: Commentari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는 성서 주석 시리즈를 철저히 검토한 후 『칼빈: 주석서』(1958)를 정리하여 펴낸 해로투니안(Joshep Haroutunian)에 의하면, “칼빈은 성경을 연구할 때, 각 저자들의 관심에 따라, 사람이 쓴 책으로 간주하고 연구하였으며, (당시)의 문학 비평가들이 하던 방식을 따랐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는 (당시)의 인문주의자의 성격이 뚜렷하다.” 여기서 칼빈을 “인문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연구 방법에 있어서 매우 철저히 비판적이었으며, 주어진 본문과 그 배후를 철저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신탁(말씀)”을 찾아내려 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칼빈이 성경을 단지 인간의 책으로 읽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해로투니안은 말한다: “무엇보다도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교회의 교육을 위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들’(mouthpieces)이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해로투니안에 의하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빙성이나 권위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적, 세부적 정확성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성경 무오성은 칼빈에게 있어 성경 권위의 기초가 아니었다.” 나아가 “성경의 독자적 무오성이나 완전 영감설” -- 이런 것은 “종교와 과학” 혹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데 -- 따위는 칼빈이나 그 시대의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pp.31-34). 우리가 이 역사적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의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신학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개혁”을 주도하였던 칼빈을 뒤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20세기 초의 “근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주의”가 성서나 예수 혹은 심지어 칼빈을 “보수”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해 준다.